



국제축구연맹(FIFA) 지아니 인판티노 신임 회장이 27일(한국시간) 스위스 취리히에서 치러진 회장 선거가 끝난 뒤 환한 미소를 지으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인판티노 회장이 각종 비리로 위기를 맞은 FIFA를 바로세울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취리히(스위스) | 신화뉴스

월드컵 본선진출 40개국 확대안 탄력

사커 토픽

인판티노 FIFA 새 회장…감지되는 변화

유럽 축구계 절대적 지지 속에 당선
본선 확대면 아시아 티켓 한장 늘수도
‘블래터 체제’ 비리 개혁 최선의 과제

새로운 ‘세계축구의 대통령’은 부패로 얼룩진 국제축구연맹(FIFA)의 권위를 바로세우고 또 한 번의 중흥기를 이끌 수 있을까.

FIFA는 27일(한국시간) 스위스 취리히 할렌슈타디온에서 2016년 특별총회를 열고 자격정지로 투표권을 잃은 쿠웨이트와 인도네시아를 뺀 207개국이 참여한 가운데 지아니 인판티노(46·스위스) 유럽축구연맹(UEFA) 사무총장을 새 회장으로 선출했다. 1차 투표에서 가장 많은 88표를 얻은 인판티노는 이어

진 2차 투표에서 과반(104표)을 넘긴 115표를 획득해 당선됐다. FIFA의 제9대 수장으로 선출된 인판티노 회장은 2019년까지 앞으로 4년 동안 부패로 얼룩져 권위가 추락한 FIFA의 개혁을 이끌게 됐다.

●‘비선수 출신’의 행정력 갖춘 개혁가

인판티노 회장은 2000년 UEFA에 입사해 2009년 10월부터 사무총장을 맡으며 UEFA의 외형적 성장을 주도했다. 행정력과 더불어 개혁적 성향을 지녔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해 미셸 플라티니 UEFA 회장이 제프 블래터 전 FIFA 회장으로부터 200만 스위스프랑(약 25억원)을 받은 혐의로 자격정지 6년을 받고 퇴출되자 UEFA의 1인자로 전면에 나선 뒤 결국 이번 선거에서 유럽축구계의 절대 지지를 바탕으로 FIFA 회장에 당선됐다.

1970년 3월 스위스 태생인 그는 이탈리아계 스위스인으로 이중국적을 갖고 있으며, 4개국

어(영어·프랑스어·독일어·스페인어)에 능통하다. 유럽국가들이 A매치 데이 때 경쟁력 있는 경기를 하도록 국가간 리그전인 UEFA 네이션스리그를 2018년부터 도입하고, 유로 2020을 유럽의 13개국에서 분산 개최하기로 하는 등 새로운 시도로 UEFA 개혁을 이끌며 ‘플라티니의 최측근’이라는 비판적 시각을 불식시켰다. 비전과 함께 행정력을 갖췄다는 평가를 듣고 있다.

●인판티노가 이끌 새로운 FIFA의 모습은?

인판티노 회장은 이번 FIFA 회장 선거 과정에서 월드컵 본선 출전국을 32개국에서 40개국으로 늘리고, 비슷한 지역의 국가들이 뭉쳐서 월드컵을 공동개최하는 방안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또 매년 209개 FIFA 회원국에는 500만달러(약 62억원)씩, 각 대륙연맹에는 400만달러(약 494억원)씩을 지원하겠다는 공약도 내걸었다.

본선 출전국이 확대되면 아시아에 배당된 월드컵 본선행 티켓도 1장 가량 늘어날 수 있다. 8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에 성공했던 한국으로선 월드컵 본선 진출 가능성은 더 커지는 반면 16강 진출 경쟁은 더 치열해질 수 있다. 월드컵 본선 출전국 확대 등 공약 이행도 중요하지만, 인판티노 회장의 발등에 떨어진 불은 FIFA 개혁이다. 블래터의 장기집권 체제에서 ‘FIFA는 파파야보다 더 하다’는 말을 듣기도 했다. 인판티노 회장도 취임 일성으로 “빠를 깎는 노력으로 FIFA의 이미지와 평판을 원래 대로 돌려놓겠다”고 다짐했다. 지금까지 9명의 FIFA 회장 중 8번째 유럽 출신인 그는 “유럽 출신 비서관을 뽑지 않겠다”며 유럽을 제외한 나머지 대륙연맹의 주장에 귀를 기울여 분란을 없애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선거에 앞서 열린 특별총회 결과에 따라 그는 연임 2차례를 포함해 최대 12년간 FIFA를 이끌 수 있다.

김도현 기자 dohoney@donga.com

윤덕여호, 1차전 북한전 올인

리우올림픽 2위 확보해야 본선행

여자축구대표팀이 2016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 ‘동반 출전’에 도전한다.

윤덕여(55) 감독이 이끄는 여자축구대표팀은 29일 일본 오사카 인바스타디움에서 리우올림픽 아시아지역 최종예선 1차전을 치른다. 상대는 북한이다. 북한은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6위로 18위인 한국보다 한 수 위다.

‘윤덕여호’는 이번 대회에서 북한을 비롯해 일본(4위), 호주(9위), 중국(17위), 베트남(29위)과 풀리그를 펼친다. 여자축구대표팀이 리우올림픽 본선 티켓을 얻기 위해선 2위 안에 들어야 한다. 윤 감독은 28일 오사카 야고다 리젠시 호텔에서 열린 공식 기자회견에서 “북한과의 첫 경기가 가장 중요하다. 우리가 준비한 것을 제대로 펼쳐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출사표를 던졌다.

북한은 호락호락한 상대가 아니다. 한국은 역대전 적에서도 북한에 고전을 면치 못했다. 1990년 9월 27일 베이징아시안게임 본선에서 0-7로 패배한 것을 시작으로 북한에 1승1무14패로 열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가장 최근의 맞대결은 지난해 8월 8일 중국 우한에서 벌어진 동아시아컵 때였다. 당시에도 윤덕여호는 북한에 0-2로 패했다. 한국의 유일한 승리는 2005년 8월 4일 동아시아컵(전주) 1-0 승리다.

윤 감독은 “북한은 조직력과 체력이 좋은 팀이다. 초반에 강하게 밀어붙이는 경향이 있다. 초반에 실점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북한의 초반 공세를 막을 수 있는 전술도 준비했다”며 선전을 다짐했다.

정지욱 기자 stop@donga.com

긴축정책 수원 “젊은피 믿는다”

권창훈 성장 이어 올해 김건희·은성수 기대

수원삼성성은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K리그 클래식(1부리그)에서 ‘돈 좀 쓰는’ 구단이었다. 전북현대, FC서울이 부럽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는 사정이 달라졌다. 모기업의 투자가 줄어들면서 외부영입이 어려워졌다. 실제로 수원은 올 겨울이적시장에서 전력누수가 많았다. 골키퍼 정성룡(가와사키 프론탈레)을 비롯해 서정진(울산현대), 카이오(부리람), 오범석(한재우 그린타운) 등이 팀을 떠났다. 외국인 공격수 이고르와 조원희를 영입했지만 출혈이 워낙 컸기에 우려의 시선이 쏟아졌다.

팀 유스시스템 출신 유망주들의 성장을 통해 전력을 유지해오고 있는 포항 스틸러스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 긴축정책으로 인한 외부전력보강이 어려울 때 전력을 높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어린 선수들의 성장이다. 수원은 지난해에도 권창훈(22)의 성장으로 쓸쓸한 재미를 본 바 있다.

수원은 24일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감사 오사카(일본)와 2016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G조 1차전을 치렀다. 0-0으로 비겨 홈에서 승리를 챙기지 못했다는 아쉬움은 지울 수 없었지만, 이날 드러난 삼성의 경기력은 우려보다 기대감을 높였다. 공격수 김건희(21), 미드필더 은성수(23) 등 젊은 선수들의 경기력이 기대이상이었다.

특히 이고르의 부상으로 인해 주전 스트라이커로 출전해 데뷔전을 치른 김건희는 비록 골을 넣지는 못했지만 87분간 그라운드를 종횡무진으로 누비며 위협적인 슈팅을 선보이는 등 눈에 띄는 활약을 펼쳤다. 수원 서정원 감독은 “어린 선수들의 가능성을 확인했다. 올해는 어린 선수들이 새로운 바람을 일으켜주지 않을까 싶다”며 미소를 지었다.

정지욱 기자



히딩크 매직은 계속된다 디에고 코스타를 비롯한 첼시 선수들이 28일(한국시간) 사우스햄턴과의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원정경기 후반 종료 직전 이바노비치의 결승 헤딩골이 터지자 서로 열싸고 기뻐하고 있다.

사우스햄턴(영국) | AP뉴시스

‘K리그 제이미 바디’를 꿈꾸는 전남 조석재

사커 피플

전북서 충주 임대 설움 딛고 19골·5도움
올해 전남으로 다시 임대…1부 데뷔 앞뒤
볼 소유·체력 보강 숙제…임대 신화 꿈꿔

K리그 클래식(1부리그) 전남 드래곤즈는 새 시즌 ‘조용한 돌풍’을 꿈꾼다. 전남 노상래 감독은 “동계훈련을 알차게 소화했다. 나름의 경쟁력을 갖췄다”고 말한다. 전남의 경쟁력 중 하나로 스트라이커 조석재(23)가 손꼽힌다. 180cm의 키에 건장한 체격을 지닌 그는 ▲공간점투 ▲수비경합 ▲골 결정력 등의 장점을 갖췄다. “조작적인 팀플레이는 좀더 시간이 필요한데, 기대하는 바가 많다”는 것이 노 감독의 설명이다. 조석재는 무명의 설움을 딛고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의 새로운 영웅으로 등장한 레스터시티 공격수 제이미 바디(29)를 롤 모델로 삼아 가슴 벅찬 클래식 데뷔를 기다리고 있다.

●최선의 선택이 만든 기적

조석재는 올해로 프로 2년차다. 그러나 아직 익숙한 이름은 아니다. K리그의 대표 ‘미생’이다. 중학교 2학년여야 축구화를 신었지만, 아마추어 시절 연평별 대표팀에 뽑히며 기량을 인정받았다. 각고의 노력 끝에 2015시



프로 2년차, 2번째 임대 시즌을 앞둔 전남 조석재는 ‘K리그의 제이미 바디’를 꿈꾸고 있다. 광양의 클럽하우스에서 엄지를 치켜세우며 활하게 웃는 조석재의 표정이 밝다. 광양 | 남창현 기자

즌 챔피언 전북현대에 입단했다. 그러나 그를 기다리라는 것은 차가운 현실이었다. 전북에서 ‘전력’의로 구분됐다. “이러다 정말 한 경기도 못 뛸 수 있겠다”는 불안감이 엄습했다.

초조함이 극에 달했던 지난해 초 겨울이적

시장 마지막 날, 전북 최강희 감독을 보좌하는 박종균 코치가 조석재를 조용히 불렀다. “임대선수로 뭘 생각이 있느냐?” 생각할 시간도, 선택의 여지도 없었다. 대답은 ‘예스(Yes)’였다. 그렇게 부라부라 짐을 꾸려 첼린지(2부리그) 중주 험멜로 향했다. 클래식 최강팀에서 첼린지 하위팀으로의 임대이적. 서운함은 없었다. 오히려 자신을 배려해준 팀이 고마웠다. “뛴고 싶었다. 그대로 뛴고 싶지 않았다. 불평불만을 늘어놓을 처지가 아니었다. 임대팀이 어디인지도 중요하지 않았다.”

자신을 버리고, 과거를 잊은 보상은 컸다. 많은 비가 쏟아지던 지난해 4월 19일 FC안양과의 홈경기. 왼쪽 측면에서 날아든 평범한 크로스를 상대 골키퍼가 낙하지점을 놓쳤고, 그 발 앞에 공이 푹 떨어졌다. 프로 1호 골. “대단하지도, 멋있지도 않은 득점 장면인데 지금 생각해도 소름끼친다.”

4경기 만에 맞본 마수결이 골을 계기로 조석재의 이후 행보는 탄탄대로였다. 36경기에서 19골·5도움을 몰아쳤다. “기적이었다. 먼 훗날, 내 인생에서 빼놓을 수 없는 시간이 언제냐고 누군가가 물으면 ‘충주에서의 2015년’이라고 주저 없이 대답할 것 같다.”

●신분은 중요치 않아! 오늘날 있을 뿐!

전북 복귀를 앞두고 다시 고민에 휩싸였다. 설렘보다는 걱정이 많았다. “(이)재성이 형처

럼 전북에서 생존해보자”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지만 여전히 답답했다. 동료들이 훈련할 때, 홀로 개인운동을 하는 설움을 반복하고 싶지 않았다. 지난해 말 이종호(24)의 전북행과 맞물려 전남과 조용한 교감이 이뤄졌다. 다시 임대. “전남에 합류했을 때의 인상이 너무 좋았다. 선배들의 살가운 인사, 덩치 큰 외국인(스테보)의 반가운 손짓. 이렇게 내가 행복을 누릴 자격이 있나 싶을 정도였다.”

전자 도전을 앞두고 조석재는 이미지 트레이닝에도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동료들과의 연계 플레이, 상대 수비진을 흔들고 벗겨내는 방법 등을 연구하고 또 연구한다. 특히 조석재가 즐겨 보는 영상은 바디의 경기 하이라이트다. 7년 전까지 8부리그를 전전했고, 의료용 부목 공장 근로자로 일하며 주급 5만원을 받던 바디는 이제 월 평균 4억원이 넘는 고액 연봉자가 됐다. 상대 수비의 배후를 파고들고, 적절한 샷 포인트를 찾아내는 탁월한 능력을 지닌 조석재의 플레이는 바디의 재능과 크게 다르지 않다.

“임대가 계속 반복된다고 문제될 것은 없다. 충주에서 공격 포인트 10개를 목표했는데, 금세 채웠다. 올해도 1차 목표는 똑같다. 수비를 등진 상태에서 볼을 소유하는 능력과 체력이 부족한데, 계속 보완하고 있다. 나도 할 수 있다.”

남창현 기자 yoshike3@donga.com